

학교탐방

거성초등학교

“즐거롭고 성실하며 건강한 어린이 육성”

어린이에게는 꿈을, 교사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믿음을 ... 사랑의 1+2활동 호평

비좁은 통학로, 협소한 운동장 등 열악한 교육환경과 지역적으로 불리한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도 큰 꿈과 사랑을 키우는 초등학교가 있다.



김연중 교장

거진을 거진3리에 위치한 거성초등학교(교장 김연중)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학습력 신장을 위한 디지털교과 연구 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바른 심성 기르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거성초교는 지난 1966년 거진항구가 바로 앞에 보이는 거진을 거진 3리 180번지에 거진국민학교 거성분교장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문을 열었다. 그후 1969년 3월 8일 정식 개교해 지난 2월 제41회 졸업식으로 모두 429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현재 교직원 18명과 7개 학급 87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학부모 대부분이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어촌 마을인 거진에 있는 거성초교는 전교생 87명중 25명이 차상위 계층 이상으로 28.7%를 차

지하며, 중식지원 대상자는 61명으로 70.1%나 될 정도로 가정환경이 열악하다. 더구나 대부분의 가정이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살아가야 하는 지역적 여건상 방과후나 토요일에도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줄 부모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적 환경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가 끝난 후에도 방과후학교에 참여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을 학교의 교육에 의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성초교에서는 교육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큰 꿈과 사랑을 키우는 거성교육과정 운영 △교육 복지 투자 우선 사업 운영 △학생들의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바른 심성을 길러 주고 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고운 인성 함양을 위한 음악반(리코더부,오카리나, 사물놀이부), 아동들의 개성과 특기를 길러주기 위한 위한 미술반, 연극반,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교과관련 프로그램으로 논술반과 창의력 증진 수리탐구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저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안심 보육교

실(체육·독서·조형·한자 교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비누 및 화장품 만들기 교실) 등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으로부터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돼 2012년까지 디지털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학습력 신장에 대한 효과를 모색하게 된다.

거성초교는 특히 교직원 1명과 아동 2명간 자매결연을 맺는 '사랑의 1+2 활동'을 운영, 교사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에 학교 및 가정생활을 원만히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서로의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행사를 가지며 사제간의 정을 함께 나누고 있다.

거성초교에서는 지난해 9월 3일 거성교육가족의 염원이었던 큰별관(다목적실) 개관식을 가졌다. 큰별관은 체육관과 급식



거성초등학교 전경.

소를 갖췄으며, 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이 문화, 체육 및 학습공간으로 활용하는 지역사회 문화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연중 교장은 “어린이에게는 꿈을,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믿음을 주는 학교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며 “모든 교직원들이 자식 같은 학생들과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승근 기자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4>

고성팔경(高城八景)④ 화진포(花津浦) II

화진포 주변 죽정1리·죽정2리·화포리 고인돌 발견

선사시대 문화가 강과 하천을 중심으로 발전했듯이 화진포의 석호를 중심으로 고성지역에는 많은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됐다. 고성지역에서 찾아진 선사시대 유적의 대부분은 청동기시대의 유적이다. 이로보아 일찍이 선사인들의 활동의 무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으로 화진포는 동해 바다와 호수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어족이 풍부하다.

주변에는 선사시대 유적으로 고인돌의 총 19개 가운데 16개의 개석식과 3개의 탁자식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이 유적은 이화여자대학교 최숙경(崔淑卿)교수의 연구논문 1961년 『고성군 현내면 오대리 지석묘』, 『고고미술 2호』, 1962년 『고성군 현내면의 선사시대유적』, 『한국문화연구원논총 3호』, 1966년 『화진포 주변의 토기, 석기, 지석묘』, 『한국문화연구원논총 9호』 각각 학계에 소개한 바 있다. 그 후에 강릉대학교 박물관에서는 1994년 10월 22일부터 1995년 10월 21일까지 고성군 지역에 대한 선사·고분유적 지표조사를 마치고 출간된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학교 박물관 학술총서 10책』에 의하면 고인돌의 분포지역은 세 곳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는 죽정1리 고인돌 유적은 거

진읍에서 7번 국도를 따라 통일전망대 쪽으로 가다가 금강산자연사박물관에서 화진포콘도로 가는 화진포 진입도로를 1.5km 가량 가면 화진포 호수와 접하는 곳에 지금은 역사안보전시관이라 불리는 이승만 초대대통령 별장이 나오는데 이승만 초대대통령 별장에 다다르기 전 100m 전방에 모두 6개의 고인돌이 화진포 진입도로와 포장길 따라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은 1962년 이화여자대학교 최숙경 교수의 학술 보고에 의해 처음 알려졌다.

두 번째 죽정2리 유적은 화진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고성산에서 시작하여 화진포 호수에 이르기까지 약 20~30m의 낮은 구릉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구릉에 고인돌이 산재해 있는데 구릉의 남쪽 사면에는 죽정2리 마을이 자리 잡고 있고 마을 앞에는 고직령에서 발원하여 화진포 호수로 흘러드는 월안천이 있다. 뒤로는 죽정1리의 청동기 시대 유물 산포지의 고인돌이 위치한 구릉이 300m 정도 떨어져 이 구릉과 같은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1호, 2호, 3호 고인돌은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조사 보고 되었고, 4호, 5호는 강릉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로 고인돌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 화진포 고인돌은 7번 국도를 따라 거진읍을 지나 화진포 호수와 접하



화포리 8호 장평리 탁자식 고인돌.

기 전 우측에 있는 마을이 화포리(차골) 마을인데 이 마을 주위의 구릉 정상부에 고인돌이 산재해 있다. 화포리 고인돌 1호~5호는 1995년 강릉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고, 6호, 7호, 8호는 이화여자대학교 최숙경 교수의 조사에 의해 보고되었는데 각각 거리를 두고 있다. 6호 고인돌은 화포리 철길 사거리에서 금강삼사로 가는 포장길을 따라 200m 정도 가다가 좌측 능선으로 가는 산길을 따라 200m 정도 가면 삼상골이 나오는데 민묘 뒤에 동남·서북 방향으로 놓여 있고, 7호 고인돌은 화포리 철길에서 차골 마을을 향해 포장도로로 500m 정도 들어가면 차골 마

음이 나오는데 이 마을 뒤편 폐가에서 산길을 따라 50m 정도 올라가면 민묘 2기의 윗부분에 남·북 방향으로 놓여 있다. 8호 고인돌은 화진포콘도 건물 정면에 위치하고 있어 '장평리 지석묘'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소재지는 강원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596번지(잡)이다.



김 광 섭

- 향토시학자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사무국장
- 논문 : <선유담의 고찰>, <간성의 만경대와 누정 고찰>